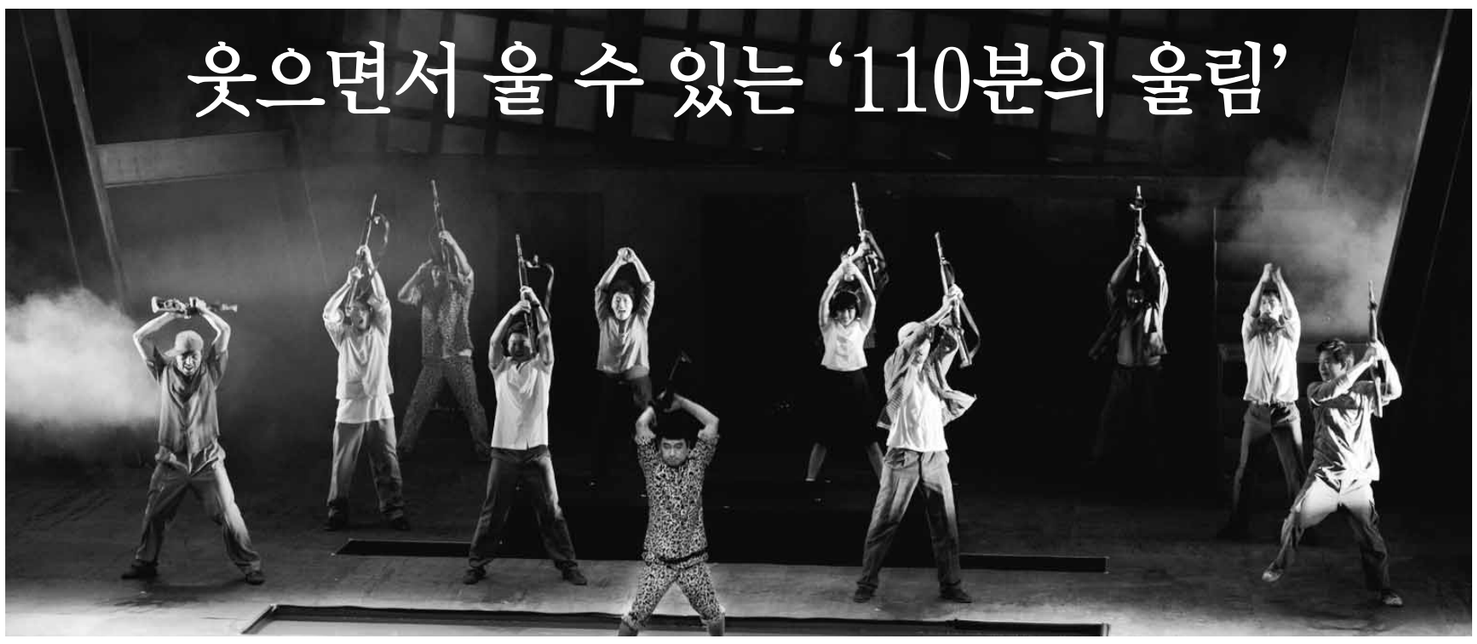

웃으면서 울 수 있는 '110분의 울림'

연극 '푸르른 날에' 광주 공연 관람기

'5월 소재' 긴장감 속 관객들 차츰 몰입돼
'아픈 과거' 쉽게 잘 표현 … 가족 관람 추천
22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객석의 불이 켜지고 공연장을 나서던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하던 결혼식 장면에서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던데. 꼭 5·18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14일 오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5월 소재 연극 '푸르른 날에'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인 정경진 작가의 '푸르른 날에'는 2011년 초연 당시 대한민국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후 4년 연속 5월이면 초연장소였던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돼 매진을 기록했고 4년만에 첫 광주 공연을 진행했다.

1980년과 그 이후 30년 세월을 거쳐가는 작품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연인 민호와 정혜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5월 광주를 다룬 연극인터라 다소 긴장감이 느껴지던 공연장의 분위기는 점차 작품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풀려나갔다. 무거움과 진중함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오월 관련 작품과 달리 웃음과 가벼움을 장착한 극 전개에 낯설어 하던 관객들도 배우들의 다소 과장된 연기에 호응하며 작품에 다가갔다.

관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도청에 모인 이들이 김남주의 '학살 2'를 낭송하는 장면이었다. '오월 어느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로 시작된 장면은 점점 고조되면서 관객들의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또 도청에서 시민군들이 죽어가는 장면, 어긋나기만 하는 정애와 민호의 사랑, '오월의 노래 2'가 흐르며 죽은 자와 산 자가 어우러진 마지막 장면에서는 울컥하는 관객들도 많았다.

커튼콜 때는 열연을 펼친 김학선·이명행씨 등 배우들에게 열광적인 환호가 이어졌고 13일 개막 공연 때는 기립박수도 나왔다.

작품에 최적화된 공연장이었던 서울 드라마센터와 달리 빛고을시민문화관은 700석 규모의 중형 극장인터라 시야가 분산되며 몰입도를 떨어트린 점은 아쉬웠다. 객석 뒷쪽에서는 대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딸 아이와 관람후 포스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김정혜(40)씨는 "초반에는 가볍고 엉뚱한 전개에 의아하기도 했지만 5월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극이 진행될수록 작품에 몰입했고 김남주의 '학살 2'를 읽는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오예님(여·50)씨는 "웃으면서 울 수 있는, 110분이 지루하지 않은 공연이었다"며 "특히 광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관람한 전명재(23)씨는 "광주에서 처음하는 공연이라는 말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공연장을 찾았는데 아픈 과거를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연극이어서 좋았다"며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 좋은 공연"이라고 말했다.

김용윤(60)씨는 "초반의 다소 가벼운 전개가 광주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오월 항쟁에 부담없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같다"며 "공연 후 이런 연극을 만들어준 데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개막 첫날이었던 13일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푸르른 날' 제작사인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고선웅 연출, 정경진 작가 등이 참여한 리셉션이 열렸다. 공연은 오는 22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계속된다. 티켓 가격 4만 5000원~2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민석의 '기억의 습작'

금호갤러리, 18일까지 청년작가 선정작가전

'숟가락 장'

2014년도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민석씨의 목공예 개인전이 1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열린다.

신씨의 작품은 유년시절 함께 놀고, 생활하던 물건들의 추억과 그 시절 물건들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완성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빨래판, 곡식 등을 담아 쓰던 되, 장롱 사이 꽂아두던 수저까지 아련한 시절의 기억을 현대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담아냈다. 어린 시절 감성들이 되살아나는 작품들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신씨는 지난 2002년 광주공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843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글램록 영화 전설 '벨벳 골드마인' 상영

광주극장, 20~24일 3차례

광주극장은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글램록을 소재로 한 음악 영화 '벨벳 골드마인'을 3회(20일 오후 7시30분, 22일 오후 4시30분, 24일 오후 7시20분) 특별상영한다.

글램록은 화려한 패션과 과감한 퍼포먼스,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글램록을 영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 내며 칸영화제 예술공헌상을 수상한 토드 헤인즈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조나단리스 마이어스, 이완 맥그리거, 크리스찬 베일 등이 출연한다. 무삭제 버전으로 디지털리마스터링 된 영상과 음향이 글램록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1971년 영국 글램 록 최고의 스타인 브라이언 슬레이드가 무대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후에 브라이언이 연출한 가짜 암살극임이 매스컴에 밝혀지고 그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 그로부터 10년 후 뉴욕 해럴드 기자 아서 스튜어트는 브라이언 암살 사건기념일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간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읍성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모색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내일 학술심포지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17일 오후 3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읍성의 역사문화자원화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의 '광주읍성의 구조와 절양루의 복원 가능성' ▲한예원 조선대 교수의 '광주의 삶과 문화를 담은 스토리텔링-광주읍성 시문을 통하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 지회장의 '광주읍성의 문화적 도시재생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와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광주읍성의 문화자원화 및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덕진 교수는 "광주읍성에 대한 학술자료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화전당 부지에 일부 복원전시와 읍성 복원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읍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34-272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우리시대 가장을 괴롭히는 것은?

'아트컴퍼니 원' 연극 '장자의 꿈'… 19~20일 동산아트홀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들 어깨는 무겁고 책임감은 막중하다. 가족 부양과 실직에 대한 부담감은 무의식 속에서도 가장들을 괴롭힌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인 극단 아트 컴퍼니 원이 연극 '장자의 꿈'을 무대에 올린다. 19~20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동산아트홀.

극단 대표 원광연씨가 희곡을 쓴 '장자의 꿈'은 1999년작이다. 2008년 12월 원씨가 출간한 희곡집에 실리면서 처음 독자들을 만났고, 이번 공연이 첫 번째 무대화 작업이다. 원씨는 15년 전 처음 작품을 집필했을 때와 2014년 현재의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한다.

'장자의 꿈'은 한가정의 가장이자 중년 샐러리맨인 30대 남자의 이야기다. 주인공 이동우는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실직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던 중 잠재의식 속에 느껴왔던 자신 속의 공포를 꿈에서 만나게 된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스토리를 웃음과 재미로 유쾌하게 풀어냈다.

배우들이 1인 다역을 맡아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는 것도 이번 작품의 매력이다. 주인공 이동우 역은 최진영씨가 맡았으며 이정진, 정다연씨가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한다. 문의 010-8889-7141, 062-360-8433. /김미은기자 mekim@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 재 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실분들 줄줄이 대기중이네요
지역이,금액이,종류가 맞지않아서요

부동산이라면 [무엇이던][지역 상관없이][금액상관없이]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뉴스,재테크 방식,건강정보 전국 세 번째이상 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급매물도있어요
1)금남로 오피스텔 39㎡ 6세대 땡처리
2)롯데옆 원룸빌딩 50%급처분
3)대형 콜라택 거져드립니다
4)화순,담양 전답,임야 싼매물 많아요
5)대로코너 대단지입구 싼땅도있어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 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